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담 당**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  
(063-280-7174, 010-4121-1210)

**보도시점** : 2021년 04월 09일부터

##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일하는 리모트워커 유치하자 전북을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최적의 지역으로 리브랜딩해야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2021년 4월 09일 『리모트워크시대 도래와 전북유치전략』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리모트워커를 전북으로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 리모트워크(Remote Work)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의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다.
-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업무 생산성, 노동력 감소, 일과 삶의 균형, 환경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리모트워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2020)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88.4%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등 2020년 이후 리모트워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리모트워커의 전북유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의 지역 이전효과와 창조적 인력의 전북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박사는 리모트워커 전복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기업 원격사무소 전복지사 유치, 워케이션(workation) 시범지역 지정, 리모트워커 투어패스제작 세 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 본사의 일부기능과 인력을 전복으로 이전하는 원격사무소 유치를 위해 ‘원격사무소 전복지사 기업유치팀’신설, 보조금지급, 빈집 활용 숙박 및 사무공간조성지원,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조성 등을 지원하자.
- 둘째,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휴양시설에 공동오피스조성 및 랩(Lab) 설치를 지원하여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시범지역을 지정하자.
- 셋째, 리모트워커 투어패스를 현재의 투어패스에 추가하고 전복 리모트워크 포털을 만들어 전복 공유오피스 맵 제작과 전복 리모트워커 팸투어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자.
- 김동영 박사는 “전세계의 리모트워커가 전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격근무를 위한 ICT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과 레저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리모트워커 전복유치전략은 전라북도를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의 일하는 방식의 선도적 지역으로 리브랜딩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